

미국영어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

박수진·전종호

1. 서론

본 논문은 미국영어 전이음(glide)의 비대칭적 분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영어에서는 음절머리(onset) 위치에서 모든 자음이 전이음 [w, j]와 자음군(consonant cluster)을 형성하지 못한다. 우선, 양순 전이음(labial glide) [w]는 “twin [twɪn], dwarf [dʰwɔːrf], swim [swɪm], queen [kwɪn]”의 예에서 보듯, 순음이 아닌 다른 조음위치의 자음들과는 자음군을 이룰 수 있으나, 같은 조음위치인 순음 [p, b, f, v, m]와는 같이 나타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경구개 전이음(palatal glide) [j]도 “beauty [bjʊti], mule [mjʊl], cute [kjʊt]”에서와 같이 순음이나 설배음(dorsal)과는 자음군을 이룰 수 있는데 비해, 동일한 조음위치를 갖는 설정음(coronal) [t, d, s, θ, n, r, l]과는 연속해서 나타날 수 없다. 또한, 전이음 [j]로 끝나는 자음군은 “pew [pjʊ], few [fju], view [vjʊ]”에서와 같이 모두 모음 [u] 앞에서만 발생하는 바, 영어 전이음은 후행모음에 대해서도 분포적 제약을 보인다.

영어에서 경구개 전이음 [j]의 비대칭적 분포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이음 [j]의 후행모음이 [u]로 제한된다는 사실에 대해 Halle & Mohanan(1985)은 후행모음 [u]에 한정된 [j]의 삽입을 가정하고 있으며 Giegerich (1992)는 [j]가 음절머리에서는 자음으로, 음핵(nucleus)에서는 모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j]의 음절머리와 음핵에 이중으로 연결된 음절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Davis & Hammond(1995)는 전이음 [w, j]의 비대칭적 분포 대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양순 전이음 [w]는 음절머리의 일부로, 경구개 전이음 [j]는 음핵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의 전이음에 대해 다른 음절구조를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전이음을 다소 임의적인 규칙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일관성 없는 음절구조를 가정하면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성이론(Prince & Smolensky 1993, McCarthy & Prince 1995)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이러한 전이음의 기저형이나 음절구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정 없이 언어 보편적인 제약을 중심으로, 표면형의 조건에 의존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 상세한 논평을 해 주신 두분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이음의 분포를 논의하면서 기존 논문들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들의 자료 분류방식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의 분석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며 4장에서는 새로운 자료 분류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최적성 이론 분석을 보여줄 것이다. 이어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겠다.

2. 자 료

영어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에 대한 기존연구들(Halle & Mohanan 1985, Giegerich 1992, Jensen 1993, Davis & Hammond 1995)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우선 선행자음과 후행모음에 대한 두 가지 관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대분류 각각의 경우에 대해 기존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방식에 따라 자료를 논의하기로 한다.

2.1. 선행자음과의 비대칭¹

순음 전이음인 [w]는 같은 조음위치를 갖는 순음이 선행자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설정음이나 설배음이 선행자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1) [w]와 선행자음

a. *[labial]+w	b. [coronal]+w	c. [dorsal]+w
*/pw/	/tw/ twin	/kw/ queen
*/bw/	/dw/ dwarf	/gw/ Guam
*/fw/	/sw/ swim	*/hw/
*/vw/	/θw/ thwart	
*/mw/		

(1a)의 자음-전이음 [w] 연속에서 선행자음은 모두 순음으로 같은 조음위치의 [w]와 연속해서 올 수 없다. 반면, (1b,c)에서 볼 수 있듯이 설정음 [t, d, s, θ]나 설배음 [k, g]와는 자유롭게 자음군을 이루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경구개 전이음 [j]는 설정음과 연속하여 음절머리에 올 수 없으며 오직 순음 또는 설배음이 선행자음으로 나타난다.

1. 이 장에서 논의하는 대부분의 자료 및 예는 Giegerich(1992)와 Jensen(1993)에서 발췌함.

(2) [j]와 선행자음

a. [labial]+j

/pj/ pew
 /bj/ beauty
 /fj/ few
 /vj/ view
 /mj/ mule

b. *[coronal]+j

*/tj/
 */dj/
 */θj/
 */sj/
 */nj/
 */rj/
 */lj/

c. [dorsal]+j

/kj/ cute
 /gj/ gules

(2b)에서 보듯 */tj/, */dj/, */sj/, */θj/, */nj/, */rj/, */lj/와 같은 연속에서 설정음은 같은 조음위치를 갖는 경구개 전이음 [j]와 함께 음절머리에 올 수 없지만 (2a,c)의 양순음 [p, b, f, v, m]나 설배음 [k, g]와는 연속해서 자음군을 이룬다. 선행자음과의 연속에서 보이는 제약은 (1),(2)에서와 같은 조음위치 뿐만이 아니라 공명음간의 연속에도 존재한다.

(3) 공명음과 전이음

a. *[sonorant]+w

*/mw/
 */nw/
 */rw/
 */lw/

b. [sonorant]+j

/mj/ mule
 */nj/
 */rj/
 */lj/

전이음 [w]는 선행자음이 공명음인 경우, (3a)에서 보듯 음절머리에서 자음군을 형성하지 못한다. 전이음 [j]의 경우, (3b)에서 보듯 설정음이 아닌 공명음 [m]와 음절머리에서 자음군을 이룰 수 있다.

2.2. 후행모음과의 비대칭²

전이음 [w, j]와 후행모음과의 연속에서도 비대칭적 분포가 관찰된다. 전이음 [w] 다음에는 (4)에서 보듯 거의 모든 모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 전이음 [j] 다음에는 (5)에서와 같이 오직 모음 [u]만 발생할 수 있다.

2. 이 장에서 논의하는 대부분의 자료 및 예는 Davis & Hammond(1995)에서 발췌함.

(4) [w]와 후행모음

Cwi	queen, dweeb, sweep, tweezers, squeeze
Cwɪ	quit, twin, dwindle, swish, squint
Cwe	quake, Dwayne, sway, quaint
Cwɛ	quest, twelve, dwell, Gwen, swept
Cwæ	quack, quagmire, twang, swagger, thwack
Cwu	swoon, swoop, squoosh
Cwo	quote, quotient, quota
Cwɔ	dwarf, thwart
Cwʌ	swum, swung
Cwa	quality, schwa, swat

(4)의 queen [kwɪn], quit [kwɪt], quake [kwɛk], quest [kwɛst], swoon [swun]과 같은 예에서 보듯 전이음 [w] 뒤에는 거의 모든 모음이 올 수 있다.

(5) [j]와 후행모음

Cj+u		*Cj+V ([u] 제외)
pew	/pju- /	
beautiful	/bju- /	
mule	/mju- /	
huge	/hju- /	

후행모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전이음 [w]와는 달리 (5)의 pew [pju], beautiful [bjutɪfʊl], mule, [mjul], huge [hjuː]에서 보듯 전이음 [j] 뒤에는 오직 모음 [u]만 나타난다. 즉, 후행모음이 [u]가 아닌 일반모음인 경우 전이음 [j]는 다른 자음과 연속을 이룰 수조차 없다. 기존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한 미국영어 전이음의 분포자료는 이처럼 [u]라는 특정모음 앞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j]의 분포와 모든 모음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w]의 분포를 동등하게 비교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분포자료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기존연구

미국영어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에 대한 선행연구로 Halle & Mohanan (1985), Giegerich(1992), Davis & Hammond(1995)의 연구를 살펴보고 그 문제

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3.1. Halle & Mohanan (1985)

Halle & Mohanan은 자음-전이음 [j]의 연속이 모음 [u]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이것은 기저형에서 자음-평순후설고모음(unrounded high back vowel)의 연속 /Ci/에 [j]가 삽입되는 j-삽입규칙(j-insertion rule)과 i-원순화규칙(i-rounding rule)의 적용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6) \text{ j-insertion: } \quad \emptyset \quad \rightarrow \quad j \quad / \quad \text{_____} \quad \left[\begin{array}{c} V \\ +\text{high} \\ +\text{back} \\ -\text{round} \end{array} \right]$$

(6)에서 보듯 평순고모음 /i/ 앞에 [j]가 삽입되어 자음-j-i 연속이 되고, 다시 (7)의 원순화 규칙에 의해 [i]는 [u]로 바뀌게 된다.

$$(7) \text{ i-rounding (postlexical): } \quad \left[\begin{array}{c} V \\ +\text{high} \end{array} \right] \quad \rightarrow \quad [+round]$$

Halle & Mohanan이 제시한 j-삽입규칙과 i-원순화 규칙에 의한 기저형 /C i/에서 표면형 [C j u]로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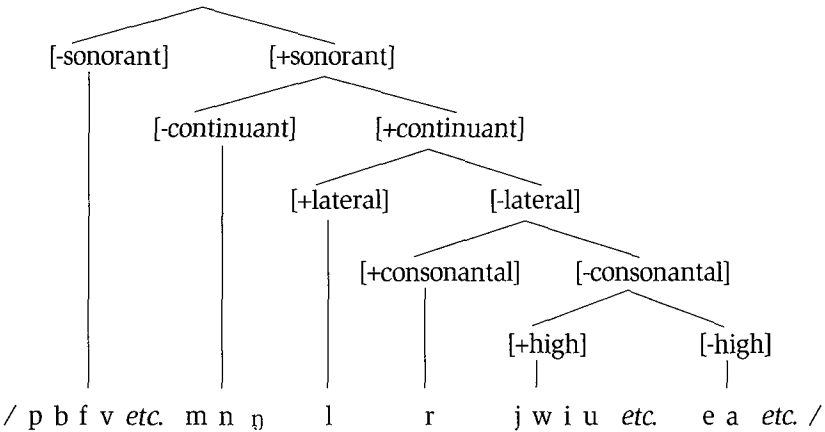
(8)	UR	/	C	i	/
	a. j-Insertion		C	j i	
	b. i-Rounding		C	j u	
	SR		C	j u	

이와 같은 분석은 영어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일이 결코 없는 /i/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추상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3.2. Giegerich(1992)

Giegerich는 영어 음절 내 가능한 음소의 연속에는 어떤 제약이 있으며, 이 제약은 소리의 공명도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Giegerich는 다음과 같은 공명척도(Sonority Scale)를 제시하고 공명도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9) 공명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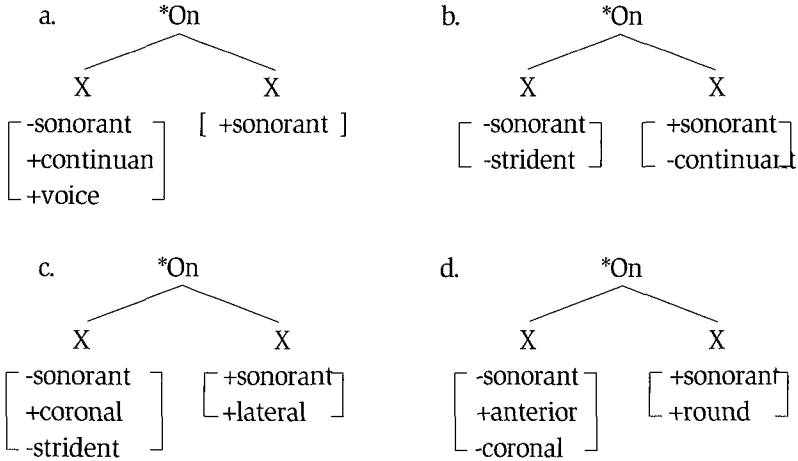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공명도가 높은 분절음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공명도가 낮아서, 파열음(stop)이나 마찰음(frictive)은 공명도가 가장 낮고 이에 비해 전이음과 모음은 공명도가 높음을 위의 척도에서 나타내고 있다. Giegerich는 (10)과 같은 음절머리형판(Onset Template)으로 형식화된 제약을 제시하고 영어에서 모든 음절머리는 이를 만족한다고 주장한다.

(10) Onset Template



(10)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음절에서 음절머리는 [s]에 의해 선행될 수 있는 하나 혹은 둘의 X-위치를 가진다. 이때, 첫 번째 자음은 [s]이며, 두 번째 자음은 반드시 [-sonorant]이고 마지막 자음은 [+sonorant]가 되어야 한다. 위의 형판에서 보듯 같은 [+sonorant]끼리 혹은 [-sonorant]끼리는 연속해서 올 수 없으므로, *[mw], *[nw], *[rw], *[lw]의 공명음 연속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pw], *[tl]과 같은 예는 위의 형판조건 [-sonorant][+sonorant] 연속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속이 불가능하다. Giegerich는 이렇게 예외로 나타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은 여과장치(filter)를 통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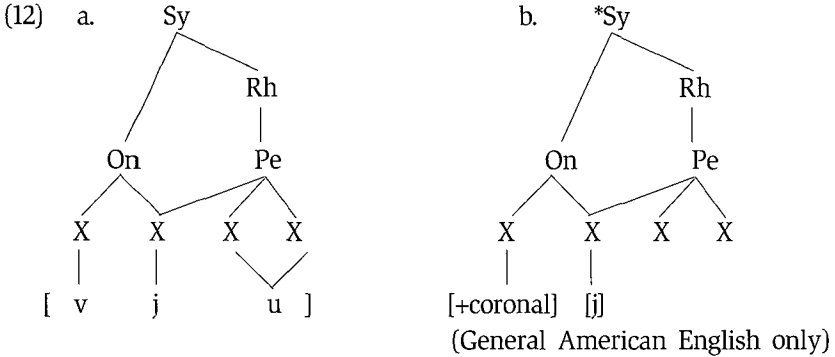
(11) 여과장치



먼저 (11a)는 [v ð z ʒ]가 음절머리 위치에서 다른 어떤 공명자음과도 연속을 이룰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이 여과장치를 통해 (1a)의 *[vw]와 같은 연속이 음절머리에 올 수 없는 것이 설명된다. (11b)는 [s]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음은 [m] 혹은 [n]와 자음군을 이룰 수 없으며 [s]만이 [m] 혹은 [n]과의 연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11c)는 [t d ɛ]가 [l]과 연속해서 음절머리에 올 수 없도록 하며 (11d)는 [p b f]가 음절머리에서 [w]와 연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1a)의 *[pw], *[bw], *[fw]의 연속이 음절머리에 올 수 없는 분포적 제약이 이 여과장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10)의 형판에서 설명되지 않는 자료는 완전히 임의적인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11)과 같은 여과장치를 계속 적용하면 모두 설명 가능하다고 Giegerich는 주장한다.

한편, 경구개 전이음 [j]는 위의 형판조건과 여과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외로 남는다. [j]는 음절머리에서 다른 자음과의 연속이 전혀 불가능한 [v]와도 자음군을 이룰 뿐만 아니라 [mj] 연속에서 보듯 공명음과도 자음군을 이룬다. 또한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 후행모음은 항상 [u]만 나타난다. 이처럼 일반 자음과는 매우 다른 행동을 보이는 [j]에 대해 Giegerich는 음절머리와 음핵에 동시에 연결된 음절구조를 제시하고 [j]가 자음처럼 행동하는 분포와 모음처럼 행동하는 분포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전이음 [j]가 다른 공명음보다도 훨씬 자유롭게 비공명음과 연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같은 공명음과도 음절머리 연속을 이루는 것 등은 [j]가 모음과 같이 행동하는 예이다. 반면, [j]가 음절형판에서 제외되는 X-위치 중 하나를 점유하며 특히 일반미국영어(General American English)에서 음절머리에 설

정음이 선행자음으로 오는 경우, 음소배열 제약을 받아 연속이 불가능한 것은 자음과 같이 행동하는 예가 된다. Giegerich는 음핵과 말음(coda)이 각운(rhyme)이라는 음운론적 단위를 이루는 것처럼 [j]의 경우도 음절머리와 음핵간에 이와 같은 어떤 음운론적 단위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전이음 [j]를 (12)에서와 같이 음절머리와 음핵에 이중으로 연결된 구조로 설명한다.



Giegerich는 여기서 어떤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설명을 시도한다기보다는 단순히 관찰한 현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같은 전이음이지만 항상 전행적인 자음으로 행동하는 순음 전이음 [w]는 왜 [j]와 다른 음절구조를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Giegerich는 불완전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Davis & Hammond(1995)

Davis & Hammond는 미국영어에서 자음-전이음-모음(CGV) 연속에서 보이는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에 대한 포괄적 자료를 기초로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CGV 연속에서 전이음 [w]는 음절머리에 속하는 반면 [j]는 뒤에 오는 음핵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명도 거리(Sonority Distance)를 척도로 음절머리 혹은 음핵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Steriade(1988 : 121)의 공명도 거리 제약을 그들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제약은 공명도가 비슷한 두 소리는 연속할 수 없다는 제약인데 이것은 음절구조에서 음절머리 내, 혹은 음핵 내에서만 적용되며 음절머리와 음핵의 경계를 넘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음은 공명도가 가장 큰 음소이지만 다른 음절위치, 즉 음절머리에 속하는 자음과의 연속에서는 공명도 거리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어떤 공명음과도 자유롭게 연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5)에서처럼 전이음 [j]는 음절 내에서 후행모음과 함께 음핵의 일부로 음절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j]는 음절머리에 오는 어떤 자음과도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공명음과도 연속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2b)의 자료는 [j]가 설정음과 함께 음절머리에 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b) */tj/, */dj/, */sj/, */ej/, */nj/, */rj/, */lj/

이것은 [j]가 음절머리에서 자음과의 연속에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여 다시금 음절머리의 일부로 보게되나 Davis & Hammond는 이것은 음절구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음위치 제약을 위배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음위치 제약은 음절하부구조(subsyllabic)에 상관없이 같은 음절 내에서의 연속을 막는 제약이다. 많은 언어에서 양순음 뒤에 원순모음이 오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음절구조에 상관없이 음절 경계에서도 적용되는 조음위치 제약에 의해 (2b)와 같은 연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Davis & Hammond는 전이음 [w]와 [j]가 각기 다른 음절구조를 갖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Pig Latin의 예를 들고 있다. Pig Latin은 영어 단어에서 음절머리 위치에 있는 자음을 단어 끝으로 보내고 이동한 자음 뒤에 모음 [e]를 첨가하는 말 놀이다. 다음 (16)의 예에서 보여주는 Pig Latin을 살펴보자.

(16) Pig Latin

English	Pig Latin
sat	[ætse]
trip	[ɪptre]
scram	[æmskre]

CwV의 연속을 포함한 단어에 대응되는 Pig Latin 형태는 (17)과 같다.

(17) CwV 연속으로 시작하는 단어

English	Pig Latin
queen	[ɪnkwe]
twin	[ɪntwe]
swagger	[ægərswe]

이 Pig Latin 형태들은 [w]를 포함한 단어머리의 자음군이 모두 단어끝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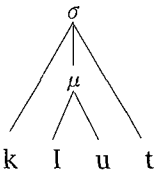
하는 바, (1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w]가 음절머리에 포함된 구조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jV의 연속에 대해서 Pig Latin은 (18a,b)와 같이 두 가지 방언으로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18) CjV 연속으로 시작하는 단어³

English	a. Pig Latin A	b. Pig Latin B
cute	[jutke]	[utke]
puke	[jukpe]	[ukpe]
mute	[jutme]	[utme]

Pig Latin A 형태에 대해 Davis & Hammond는 자신들의 주장처럼 전이음 [j]가 음절머리가 아니라 음핵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어 끝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cute [kjut]의 예에서 자음 [k]만 이동하여 [jutk]가 되고, 마지막에 모음 [e]가 첨가된 후 [jutke]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Pig Latin B를 살펴보면 같은 예에서 이번에는 음절머리의 [k]만이 단어 끝으로 이동하고 [j]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Davis & Hammond의 설명은 [kj]가 함께 단어 끝으로 이동하여 [utkj]가 되었다가 끝에 모음 [e]가 첨가되어 [utkje]가 되고, 단어 끝 [Cje] 연속이 영어 음소배열 제약을 위배하여 [j]가 생략되어 결국 [utke]로 도출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전이음 [j]를 다시 음절머리의 일부로 보게 하는 예가 될 수도 있는데, Davis & Hammond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Borowsky(1984)와 Anderson(1988)의 제안을 따라 CjV 연속에서 [j]는 도출과정 초기에는 음핵의 일부이나 후기 규칙에 의해 음절머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것을 cute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19)와 같은 초기 음절화 과정 후에 (20)의 구조로 표면형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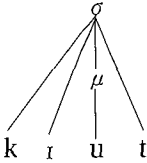
(19) 초기 음절화에 의한 cute의 구조



(19)에서 보듯 초기음절구조에서 [j]는 음핵의 일부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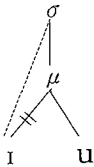
3. Davis & Hammond는 경구개 전이음 [j]의 기호를 [y]로 사용하나 여기서는 전 장에 걸쳐 논의되는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j] 기호로 표기하기로 한다.

(20) cute의 표면형



(20)에서와 같이 음핵의 일부였던 초기음절에서의 연결이 끊어지고 규칙에 의해 음절머리의 일부로 다시 연결된다. Borowsky와 Anderson이 주장한 이 규칙을 Davis & Hammond는 다음과 같이 /i/-to-[j] 규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1) /i/-to-[j] rule



CjV 연속의 Pig Latin에서 보이는 두 가지 방언은 (21)의 /i/-to-[j] 규칙과 Pig Latin 규칙의 적용 순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도출된 결과로 보고 이 두 방언을 (22a,b)와 같은 도출과정으로 설명한다.

(22) cute /kjut/

a. Dialect A

UR	/kjut/
Pig Latin	ɹutke
/i/-to-[j]	jutke
PR	[jutke]

b. Dialect B

UR	/krut/
/i/-to-[j]	kjut
Pig Latin	utkje
Phonotactic fix-up	utke
PR	[utkje]

(22a)에서 기저형 /kjut/ 연속에서 Pig Latin 규칙이 적용되면 자음 [k]가 단어 끝으로 이동하여 [Iutk]가 되고 뒤에 모음 [e]가 첨가되어 [Iutke]로 된다. 여기에 /i/-to-[j] 규칙이 적용되어 /i/는 [j]가 되고 결국 전이음 [j]가 표면형으로 나타나서 표면형은 [jutke]가 된다. (22b)에서는 /i/-to-[j]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kjut]로 된다. 여기에 Pig Latin 규칙이 적용되면 음절머리 위치의 [kj]가 함께 단어 끝으로 이동하여 [utkj]가 되었다가 끝에 모음 [e]가 첨가되어 [utkje]가 된다. 이 때

[kje]의 연속은 영어의 음소배열 제약을 위배하므로 전이음 [j]가 탈락하고 표면형은 [utke]가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Davis & Hammond의 분석에서는, 전이음 [w]는 선행자음과 함께 음절머리에 속하여 공명음 제약의 적용을 받고 전이음 [j]는 후행모음과 함께 음핵의 일부가 되어 공명음 제약을 면제받는 것으로 분석하는 바, 같은 전이음 [w], [j]에 각기 다른 음절위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모라가 부여되는 전이음 [j]가 대응하는 모음 [i]와 자질적으로 구별됨을 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이음 [w], [j]와 대응하는 모음 [u, i]가 동일한 자질구조를 갖는 같은 분절음들로 그들이 표면형에서 속하게 되는 음절구조의 위치에 따라 구별될 뿐이라는 음운론에서의 일반적 주장(예, Kenstowicz 1994 37쪽 언급)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Pig Latin의 예에서도 /r/-to-[j] 규칙을 다시금 도입하여 임의적인 중간과정을 요구하는 등 그들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간단계를 배제하는 병렬주의 최적성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전이음의 특별한 음절구조의 가정 없이 표면형에서의 제약만으로도 이들 전이음간의 비대칭적 분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줄 것이다.

4. 분 석

기존 연구에서 분석을 시도한 전이음 [w], [j]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자료로 분류되어 왔다.

(23) 전이음의 종류에 따른 분포 제약

분 포 제 약		w	j
선 행 자 음	조 음 위 치	○	○
	공명도 거리 제약	○	×
후 행 모 음		×	○

위의 분류에서 보듯, 같은 전이음에 속하므로 공명도에서 차이가 없는 [w]와 [j]가 공명도 거리 제약의 적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 바, 이에 대한 기존분석은 전이음 [w]와 [j]에 상이한 음절구조를 부여하거나, 임의적인 중간도출 과정을 가정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전제한 [j]의 분포는 후행모음이 [u]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된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를 후행모음이 [u]가 아닌 다른 모음인 일반적인 경우와 후행모음이 [u]인 특정 경우로 나누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이음 [w], [j]의 분포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후행모음이 [u]가 아닌 일반모음일 때, 전이음 [w]의 분포는 2장에서 제시한 내용과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w]는 음절머리에서 순음과 연속을 이루지 못하며 설정음 및 설배음과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24) CwV 연속에서 선행자음의 분포

a. *[labial]+wV	b. [coronal]+wV	c. [dorsal]+wV
*/pw/	/tw/ twin	/kw/ queen
*/bw/	/dw/ dwarf	/gw/ Guam
*/fw/	/sw/ swi	*/hw/
*/vw/	/θw/ thwart	
*/mw/		

(24)는 (1)의 자료를 반복한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24a)에서 보듯이 [w]는 음절머리에서 같은 조음위치의 순음과 연속을 이루지 못하며 (24b,c)의 예처럼 설정음 및 설배음과 연속해서 음절머리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5)에서 보듯 선행자음이 공명음인 경우, 음절머리에서 [w]와 자음군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2장에서 논한 바와 같다.

(25) *[sonorant]+wV

- */mw/
- */nw/
- */rw/
- */lw/

이에 비해 [j]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음절머리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 아래 표 (26)에 요약한 것처럼, 후행모음이 [u]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w]는 선행자음에 대한 조음위치 제약과 공명음 제약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j]는 어떤 자음과도 음절군을 이룰 수조차 없어, 이런 제약들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6) CGV 연속의 분포 제약 (V = [u]가 아닌 모음)

분포 제약	w	j
CGV 연속가능	○	×
조음위치 제약	○	해당 없음
공명음 제약	○	해당 없음

[w]의 후행모음이 [u]인 경우, 그 밖의 다른 모음인 일반적인 경우와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j]는 같은 조음위치의 설정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과의 연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명음과도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27) Cju 연속에서의 선행자음의 분포

a. [labial]+ju	b. *[coronal]+ju	c. [dorsal]+ju
/pj/ pew	*/tj/	/kj/ cute
/bj/ beauty	*/dj/	/gj/ gules
/fj/ few	*/θj/	/hj/ huge
/vj/ view	*/sj/	
/mj/ mule	*/nj/	
	*/rj/	
	*/lj/	

다음은 공명음이 [j]의 선행자음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며 그 분포는 (28)과 같다.

(28) [sonorant]+ju : /mj/ mule

일반모음 혹은 [u], 어느 것이 후행모음으로 와도 공명음과의 연속이 불가능한 [w]와는 달리 [j]는 (28)에서 보듯 후행모음이 [u]인 경우 공명음과 자음군을 이룰 수 있다. */nj/, */rj/ */lj/ 같은 연속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은 (27b)에서와 같은 조음위치에 따른 제약 때문이며 공명도와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w], [j]의 분포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9) CGV 연속의 분포 제약 (V = [u])

분포 제약	w	j
CGV 가능	○	○
조음위치 제약	○	○
공명음 제약	○	×

이상에서 영어 전이음의 분포 자료를 후행모음이 [u]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와 [u]인 특정한 경우로 나누어 재분류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일반적인 경우의 분포를 중심으로 최적성 이론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특정한 경우의 분포에 확장하고자 한다.

최적성 이론은 전통적인 생성 음운론에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규칙과 중간 도출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표면형의 적격성에 관심을 둔다. 이 이론은 음운

현상들이 언어 보편적인 제약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 제약들은 순위가 정해지며 또 위배될 수 있다. 순위 매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 제약이 위배되면 하위 제약이 아무리 잘 지켜진다 해도 표면형으로 도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상위의 제약을 최소로 위배하는 형태가 최적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규칙중심의 이론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표면형이 도출되나 최적성 이론에서 입력형(input)의 여러 후보형(candidates)에 대한 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져 입력형과 출력형(output) 사이에 중간 도출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표면형에서의 제약만으로 최적형의 도출이 가능하므로 기저형에 대한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최적성 이론에 근거하여 기존연구에서 다룬 규칙중심의 분석이나 기저형의 음절구조 차이로 파악하고자 한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에 대해 일반적이고도 언어 보편적인 제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음운론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심가설을 따라, 기저구조에서 모음 [i], [u]가 표면형에서 음절머리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 각각 전이음 [j], [w]로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고모음 [i]와 [u]가 후행모음이 있는 경우 모음 연속을 피하기 위해 전이음으로 바뀐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제약을 제시한다.

(30) *V_{hi}V : 고모음과 다른 모음이 연속해서 발생할 수 없다.

모음연속 회피 현상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관찰되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모음이 연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거나 전이음으로 바뀐다. 모음의 탈락을 막는 충실성 제약(Faithfulness Constraint)으로 McCarthy & Prince(1995)가 제시한 MAX 제약을 도입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 자음이 있고 모음이 전이음으로 바뀌는 경우 음절머리에 두 자음이 함께 오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는 유표성 제약(Markedness Constraint) *COMPLEXONSET을 함께 고려한다. 영어에서 표면형에서 모음 연속은 나타나지 않고 항상 자음-전이음-모음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V_{hi}V 제약과 MAX 제약이 *COMPLEXONSET 제약보다 상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31)과 같이 순위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1) *V_{hi}V, MAX >> *COMPLEXONSET

위 (31)의 제약순위에 따른 'twin'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32) twin (자료 24b)

Input / t u i n /	*V _{hi} V	MAX	*COMPLEX
a. t u i n	*!		
☞ b. t w i n			*
c. t i n		*!	

(32)의 표에서 보듯 [tuin]의 모음 연속은 *V_{hi}V 제약을 위배하므로 표면형으로 나타날 수 없고 MAX 제약이 또한 모음 탈락을 막으므로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COMPLEXONSET 제약을 위배한 [twin] 연속이 표면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24a)에서 보듯 [w]는 같은 조음위치의 순음과 함께 음절머리에 오지 못한다. 이것은 서로 같은 조음위치를 갖는 두 자음이 연속해서 오는 경우, Leben(1973), McCarthy(1979) 등에 의해 제안된 의무 굴곡 성조 원리(Obligatory Contour Principle)를 위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표성 제약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33) OCP(place): 동일한 조음위치를 갖는 자음-전이음 연속은 나타날 수 없다.

*COMPLEXONSET 제약은 (32)의 표에서 보듯 상위 제약에 의해 항상 위배되어 표면형에는 자음 연속이 나타난다. OCP(place) 제약은 이러한 자음 연속 중 같은 조음위치의 자음 연속을 막아 *[pw]나 *[tj]와 같은 연속이 표면형에 나타나는 것을 막으므로 OCP 제약이 충실성 제약인 MAX 제약보다 상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바, 다음과 같은 제약순위를 가정할 수 있다.

(34) *V_{hi}V, OCP(place) >> MAX >> *COMPLEXONSET

이 제약 순위는 기저형에서 같은 조음위치의 자음이 선행하더라도, 전이음이 그 자음과 자음군을 이루어 표면형에 나타날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의 형태 /pua/에서 [pwa]와 같은 실현형이 나올 수 없음을 다음의 분석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가상단어 /pua/

Input / p u a /	*VhiV	OCP	MAX	*COMPLE
a. p ua	*!			
b. pw a		*!		*
c. p a			*	

(35)에서 보듯 [pua] 연속은 상위제약인 *V_{hi}V를 위배하므로 표면형으로 나타날 수 없다. 또 모음 [u]가 전이음 [w]로 바뀌게 되면 같은 조음위치의 선행자음 [p]와 연속하게 되어 또 다른 상위제약인 OCP(place) 제약을 위배하므로 [pwa] 연속 역시 표면형으로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료 (25)에서는 음절머리에 공명음과 전이음이 연속해서 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제약은 Davis & Hammond가 가정한 일종의 공명도 거리 제약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6) *SONSON : 공명음은 다른 공명음과 음절머리에 연속해서 발생할 수 없다.

후행모음이 [u]를 제외한 일반모음인 경우 (25)의 예에서 보듯 공명음-전이음 연속의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제약은 MAX나 *COMPLEXONSET 제약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이들 제약간의 순위 매김은 (37)에서와 같이 제시된다.

(37) *V_{hi}V, OCP(place), *SONSON >> MAX >> *COMPLEXONSET

위 (37)의 제약순위에 따른 가상의 자료 /nua/ 연속의 분석표는 (38)과 같다.

(38) 가상단어 /nua/

Input / n u a /	*VhiV	OCP	*SON	MAX	*COMPLE
a. n ua	*!				
b. nw a			*!		*
c. n a				*	

(38)에서 보듯 [nua] 연속은 *V_{hi}V 제약을 위배하여 표면형으로 나타날 수 없고 [nwa] 연속 역시 공명도 거리 제약을 위배하여 최적형으로 남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w]와 [j]의 근본적인 분포차이를 살펴보자. (24)의 예에서처럼 CwV 연속

의 [w]는 양순음과 공명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과의 연속이 가능한데 비해 [j]는 어떤 자음과도 연속조차 이룰 수 없음을 보았다. 이것은 일종의 복합 음절머리 (complex onset)인 자음-전이음의 연속을 회피하는 일반적인 제약을 전이음의 종류에 따라 좀더 구체화하여 Cw 연속을 막는 제약과 Cj 연속을 막는 제약간에 상대적 순위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Cw 제약이 그 순위가 매우 낮아서 이러한 연속의 표면형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타나는 반면, *Cj 제약은 상위에 위치하여 그 표면형에서의 발생을 늘 막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Cj 제약이 *Cw 제약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은 Casali(1997)에 의해 이미 언어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된바 있다. 이제, *Cj, *Cw 사이의 상대적인 제약 순위를 (37)의 전체 제약 순위에 포함시켜 (39)와 같은 순위 매김을 제시한다.

(39) *V_{hi}V, OCP(place), *SONSON, *Cj >> MAX >> *Cw, *COMPLEXONSET

위 제약 순위에 따른 queen의 분석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0) queen (자료 24c)

Input / k u i n /	*V _{hi} V	OCP	*SON	*Cj	MAX	*Cw	*COMPLEXONSET
a. k u i n	*!						
b. kw i n						*	*
c. k i n					*!		

위에서 보듯 [kuin] 연속은 *V_{hi}V 제약을 위배하여 그대로 표면형으로 나타나지 못하며 [kin] 연속 역시 MAX 제약을 위배하여 탈락한다. 결국 [kwin] 연속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Cw 제약을 위배하고 최적형으로 남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상 단어 [kia] 연속을 아래의 분석표에서 살펴보자.

(41) 가상단어 /kia/

Input / k i a /	*V _{hi} V	OCP	*SON	*Cj	MAX	*Cw	*COMPLEXONSET
a. k i a	*!						
b. kj a				*!			*
c. k a					*		

입력형과 같은 [kia]는 *V_{hi}V 제약을 위배하여 표면형으로 나타날 수 없고 [kja]

연속은 MAX 보다 상위에 위치한 *Cj 제약을 위배하므로 역시 탈락한다. (40)과 (41)을 통해 *Cj와 *Cw간의 상대적 제약순위가 [kwɪn]와 같은 연속은 표면형으로 가능하나 [kja]와 같은 연속은 불가능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후행모음이 [u]를 제외한 다른 모음인 일반적인 경우는 음운론에서 이미 검증된 표면형에 대한 유표성 제약들로 전이음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포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행모음이 [u]인 특정한 경우, [j]가 선행자음과 자음군을 이룰 수 있는 분포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 구체적 근거나 동기는 알 수 없으나, 기저형에서 특정연속인 /iu/를 표면형에 실현시킬 것을 요구하는 특정 소리연속에 대한 충실성 제약의 효과로 가정하고 (42)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42) MAX(i-u) : 기저형에서의 /iu/ 연속은 표면형에서 대응하는 연속이 있어야 한다.

이 Max(i-u) 제약이 공명음-전이음 연속을 막는 공명도 거리 제약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m]와 같은 연속이 공명도 거리 제약을 위배하지만 후행모음이 [u]인 경우엔 기저형의 모음 연속 /iu/를 지키기 위해 표면형에서 [mju]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소리 연속에 대한 충실성 제약은 분절음에 대한 충실성 제약인 MAX와는 구별되어, 단순히 기저형의 연속을 이루는 각각의 소리가 표면형의 대응소를 각각 갖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표면형에서도 역시 같은 순서를 유지하고 서로 이웃하는 소리들의 연속과 대응함을 요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위의 제약은 분절음에 대한 충실성 제약인 MAX와는 구별된다.

이제 (27),(28)의 자료들을 살펴보자. 모음이 [u]를 제외한 다른 일반 모음일 경우 그 연속이 불가능했던 공명음과의 연속에서 [u]가 후행모음으로 오게되면 [mju-]와 같은 연속이 가능하다. 이처럼 설정음이 아닌 공명자음과 [j]와의 연속은 가능하게 된 반면(예, mule [mjul]), 설정음인 [n], [r], [l]과의 연속은 여전히 불가능하므로(예, *[nju-], *[rju-], *[lju-]), Max(i-u) 제약은 공명도 거리 제약보다는 상위에, 그리고 OCP 제약보다는 하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제약들과 더불어 이들 모든 제약간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순위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43) *V_{hi}V, OCP >> MAX(i-u) >> *SONSON, *Cj >> MAX >> *Cw, *COMPLEX

이상의 순위에 의해 'mule'을 분석해 보면 표 (44)와 같다.

(44) mule (자료 28)

Input / m i u l /	*V _{hi} V	OCP	MAX(i-u)	*SON	*C _j	MAX	*C _w	*COMPLEX
a. m i u l	*!							
b. m j u l				*	*			*
c. m u l			*!			*		

(44)에서 볼 수 있듯이 [miul] 연속은 표면형의 *V_{hi}V 제약에 걸려 탈락하고 [mul] 연속은 기저형의 /iu/ 연속을 지키지 않아 MAX(i-u)를 위배하여 역시 탈락한다. [mjul] 연속은 비록 *C_j 제약을 위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는 MAX(i-u) 제약을 지키므로 최적형으로 남게된다. 다음은 가상 단어 /niu/ 연속의 분석을 살펴보자.

(45) 가상단어 /niu/

Input / n i u /	*V _{hi} V	OCP	MAX(i-u)	*SON	*C _j	MAX	*C _w	*COMPLEX
a. n i u	*!							
b. n j u		*!		*	*			*
c. n u			*			*		

(45)의 [niu] 연속은 표면형에서 *V_{hi}V 제약을 위배하며 [nju] 연속에서는 [n]와 [j]가 같은 조음위치를 가지므로 OCP를 위배하여 탈락하게 된다. 결국 선행자음이 설정음인 경우, 기저형의 /iu/ 연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표면형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46) 가상단어 /mia/

Input / m i a /	*V _{hi} V	OCP	MAX(i-u)	*SON	*C _j	MAX	*C _w	*COMPLEX
a. m i a	*!							
b. m j a				*!	*			*
c. m a						*		

(46a)는 모음연속을 포함하여 상위제약인 *V_{hi}V를 위배하고 (46b)는 공명음을 선행자음으로 하는 [j]를 포함하므로 *SON를 위배하여 최적형이 될 수 없다. 결국, 후행모음이 [u]가 아닌 경우, [j]의 발생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상으로 미국영어자료에서 보이는 전이음들의 비대칭적 분포를 모두 분석하였다. 이제 Davis & Hammond가 자신들의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로든 Pig Latin을 살펴보기로 한다. Pig Latin 규칙에 의하면 음절머리에 있는 자음이 단어 끝으로 이동하고 그 뒤에 모음 [e]가 삽입된다. 이때 음절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게되면 자료 (16)에서의 scam [skræm]의 경우처럼 음절머리의 자음이 모두 단어 끝으로 이동하였다. 이 자료를 간략히 살펴보면 (47)과 같다.

(47) scam [skræm] → [æmskr] → [æmskre]
 음절머리의 자음이 단어 끝으로 이동 단어 끝에 모음[e] 첨가

이 규칙은 자료 (17)의 CwV 연속에서 다른 일반자음 연속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17) English	Pig Latin
queen	[inkwe]
twin	[ntwe]
swagger	[ægərswe]

그러나 (18)의 자료에서처럼 CjV 연속에서는 (18a,b)와 같은 두 가지 방언을 보인다.

(18) English	a. Pig Latin A	b. Pig Latin B
cute	[jutke]	[utke]
puke	[jukpe]	[ukpe]
mute	[jutme]	[utme]

Davis & Hammond의 설명에 따르면 Pig Latin B의 경우는 전이음 [j]가 음절화 규칙에 의해 자음이 되어 선행자음과 함께 단어 끝으로 이동한 후 생략된 것이며, Pig Latin A의 경우는 전이음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j]가 모음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듯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두 자료에 대한 Davis & Hammond의 분석은 복잡한 중간 단계들을 가정하면서 최근 음운론의 주류 이론인 최적성 이론의 병행주의(parallelism)에도 맞지 않는 등 근본적 원인규명으로 보기 힘들다.

전이음이 포함된 형태의 최적성 이론 분석을 위해 먼저 Pig Latin 규칙을 일종의 기술적(descriptive) 제약으로 바꾸어 본다. 음절머리 위치에 있는 자음이 단어 끝으로 이동하고 그 뒤에 모음 [e]가 첨가된다는 Pig Latin 규칙은 출력형이 모음으로 시작해야하며 반드시 모음 [e]로 끝나야 한다는 표면형에 대한 제약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Pig Latin 제약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

하기로 한다.

(48) Pig Latin : Pig Latin 형태는 해당 영어 단어의 첫 번째 모음으로 시작해야 하며, 그 모음의 선행자음들과 첨가된 모음 [e]의 연속으로 끝나야 한다.

자료 (18)은 Pig Latin 제약과 (42)의 Max(i-u) 제약간의 순위를 방언에 따라 달리 제시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방언 분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9) Pig Latin A

Input /k j u t + e/	MAX(i-u)	Pig	*Cj
a. k j u t e		**!	*
b. j u t k e		*	
c. u t k e	*!		
d. u t k j e	*!		*

위에서 보는 것처럼 Pig Latin A에서 후보형c와 d는 가장 상위에 있는 제약 MAX(i-u)를 위배하여 표면형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또 후보형a는 음절머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와서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Pig Latin 제약을 두 번 위배하므로 이 제약을 한 번 위배하는 후보형b가 최적형으로 남게 된다. 다음은 Pig Latin B의 예이다.

(50) Pig Latin B

Input /k j u t + e/	Pig	MAX(i-u)	*Cj
a. k j u t e	**!		*
b. j u t k e	*!		
c. u t k e		*	
d. u t k j e		*	*!

(50)에서 보듯 후보형a와 b는 음절머리에 자음이 있어 가장 상위에 위치한 Pig Latin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후보형d는 MAX(i-u)와 *Cj 제약을 모두 위배하므로 MAX(i-u)만을 위배하는 후보형c가 최적형으로 표면형에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cute [kjut]가 (18a,b)와 같이 두 가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약 Pig

Latin과 MAX(i-u) 제약간의 순위 매김에 따른 것으로, 이들 제약간의 순위에 따라 [jutke], 혹은 [utke]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으로 CGV 연속에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미국영어 전이음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최적성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이들 전이음이 서로 다른 음절구조에 포함되는 예외적 구조를 배제하였고, 기저형에서의 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없이 이들 표면형에 대한 제약만으로도 그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전이음 [j]가 후행모음 [u] 앞에서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포를 보임을 설명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정한 특정 소리 연속의 충실성 제약 MAX(i-u)의 보편성이나 실체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어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최적성 이론의 틀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기저형에서의 전이음 [w]와 [j]의 음절구조를 다르게 가정함으로써 복잡한 중간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최적성 이론에서 표면형의 적격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표성 제약들로 보다 설득력 있는 형식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J. (1988) 'More on Slips and Syllable Structure,' *Phonology* 5, 157-159.
- Borowsky, T. (1984) 'On Resyllabification in English,' *WCCFL* 3, 1-15.
- Casali, R. F. (1997) 'Vowel Elision in Hiatus Contexts: Which Vowel Goes?' *Language*, 73.3, 493-533.
- Davis, S., and Hammond, M.(1995) 'On the Status of On-glides in American English,' *Phonology* 12, 159-12.
- Giegerich, H. J. (1992) *English Phonology.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alle, M. and Mohanan, K.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6, 57-116.
- Jensen, J. T. (1993) *English Phonology*, John Benjamins.

- Kenstowicz, M. (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Cambridge and Oxford.
- Leben, W. (1973) *Suprasegment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McCarthy, John. (1979) *Formal problems in Semitic Phonology and Morphology*, PhD dissertation, Garland Press, New York.
- McCarthy, J. and A.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J. Beckman, S. Urbanczyk and L. Walsh, ed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Papers in Optimality Theory*, GLSA, Amherst, 249-384.
- Prince, A. and P.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 Steriade, D. (1988) Review of Clements & Keyser (1983) *Linguistic Inquiry* 64, 118-129.

ABSTRACT

Asymmetric Distributions of Glides in General American English

Soojin Park · Jongho J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explicit formal account for asymmetric distributions of glides in General American English. The data, which we attempt to analyze in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bial glide [w] and the palatal glide [j] cannot cooccur with preceding labial and coronal consonants, respectively. Second, only [w] cannot cooccur with preceding sonorants. Finally, unlike [w] which can occur before any vowels, [j] can occur only before [u].

Most previous analyses employ somewhat complicated and arbitrary

mechanisms. For instance, in Davis and Hammond (1995), different syllable positions, onset and nucleus, are assigned to [w] and [j], respectively. Also, several intermediate representations are posited during the deriv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provide a constraint-based parallel analysis within the framework of Optimality Theory. Markedness constraint OCP is adopted to account for the lack of homorganic CG clusters such as *[pw] and *[tj]. Another Markedness constraint, which prohibits a sequence of sonorant consonants, is adopted to account for the lack of sonorant-[w] sequences like *[nw]. Finally,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j] can occur only before [u], we propose a faithfulness constraint for a certain sequence, i.e. MAX(i-u) which requires that an underlying sequence /iu/ must have correspondents with identical precedence relations at the surface. We have shown that the interaction of these constraints produce all the asymmetric patterns of glides in General American English.

박수진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314-1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 sjinpark@kebi.com

전종호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314-1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 jhjun@yu.ac.kr